

솔로몬 소식

(13-1호 통권24호)

2013. 3. 10

IDI(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olomon Islands

미전도 부족 선교 “투루라나(Tururana) 성전건축”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재 투루라나 지역내에 교회 개척을 위해 매주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사람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에는 7-8미터되는 커다란 나무들이 도로에 쓰러져 있어 어렵게 피해가기도 하고, 불어난 강물을 건너 마을로 들어가,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내의 땅 소유주들과 4개부족으로 구성되어있는 투루라나의 추장들과 만나 교회건축에 대한 저의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나누며 기도하므로 해서 대부분의 마을 리더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루라나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로(Moro movement)라는 종교가 솔로몬 군도에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투루라나는 모로의 30주년 행사를 개최한 모로종교의 중요 지역입니다. 이 모로의 생활방식이 서양문화를 배척하고 전통의 생활방식과 그들이 믿던 전통미신을 믿으

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전 솔로몬 군도 정부의 승인으로 현직 수상이 전통문화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모로종교 지도자들에게 백만달라(약 1억 5천만원)의 엄청난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인해 2006 모로의 창시자인 펠릭스 모로의 사망이후 급격히 약화되었던 교세가 이번일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투루라나 마을 내에 있는 모로의 신당이라 할수 있는 보코보코라는 장소를 다시 정비하고 마을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복장을 입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모로의 어둠의 세력과 술과 방탕함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생명이 자나날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속히 세워질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을 추장과 앞이 잘 안보이는 추장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랑가(Hatanga) 유치원 아이들



종이박스를 깔고 공부하는 아이들

쓰레기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지난해부터 복음을 전하며, 더하기부터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6-7살인 아이들도 한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학공부만 가르쳐줘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공부에 열중합니다. 하나, 둘도 모르던 아이들이 덧셈과 뺄셈, 곱셈을 하는걸 보면 너무나 기특합니다. 성경문제를 내면 이제는 대답을 척척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 배가 부릅니다. 작은 이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

이 저에게 영향받는다기 보다는 놀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얻는것이 많은것 같아서 더 잘해주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점심을 준비해가며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형편에 맞지 않는 사치로 들리진 않을까 늘 기도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은미 선교사 드림)

존(John) 형제를 소개합니다.

존 형제는 지난해 거리 전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무관심으로 대하던 처음 표정과 달리 복음을 전하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다니는 교회를 함께 출석하며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존 형제의 순수함과 말씀에 대해 스펀지 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성경책과 성경 읽기표를 주며 매일 성경을 읽고 읽기표에 표기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주에 신약성경을 거의다 읽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나누며 권고했던 부분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모습에 저에게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단했던 학교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을 권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올해 18살에 중학교 3학년예 다시 입학하였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 형제의 삶을 통이 가난한 이땅에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로 자나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 매일의 삶속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도록.

2. 쓰나미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데모투(Temotu) 지역의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3. 열대 풍토병인 뎅기열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4. 투투라나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매주 방문을 통하여 복음전파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협력하는 솔로몬의 SSEC 교단의 수타(Suta) 교구와 한마음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 SSEC 교단소속의 직업학교인 카우타베(Kutabe) 의 목공반과 함께 시공하기 위한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정글지역내에서의 건축으로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잘 계획하고 준비할수 있도록.

5. 위 지면을 통해 소개한 존(John) 형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잘 자라도록, 그리고 부족한 학비가 채워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
도
제
목

솔로몬정보 : 쓰나미 경보

지난 2월16일 오후 12시 12분 솔로몬군도 동쪽에 위치한 데모투 지역의 남서쪽 33Km 지점에서 강도8.0의 강진과 함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오후 1시경에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TV에서 보내준 솔로몬군도에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차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때 저외에 4명의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아무도 쓰나미에 대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저희보다 한국의 소식이 더빨랐습니다. 잠시뒤 쓰나미 경보발령의 소식이 퍼지면서 모든 관공서, 학교, 상가등 모두 문을 닫고 대피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2시경이나 되서 산으로 피신해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이 쓰나미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이곳까지 피해는 없었지만, 발생인근 지역에는 10명이 사망하고 가옥600여채가 완파되어 3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와 도움의 손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연락처

주 소

P.O Box 86
Honiara
Solomon Island

이메일

cjh5690@naver.com
cjh5690@gmail.com

전 화

+677-7456108
+677-7558001